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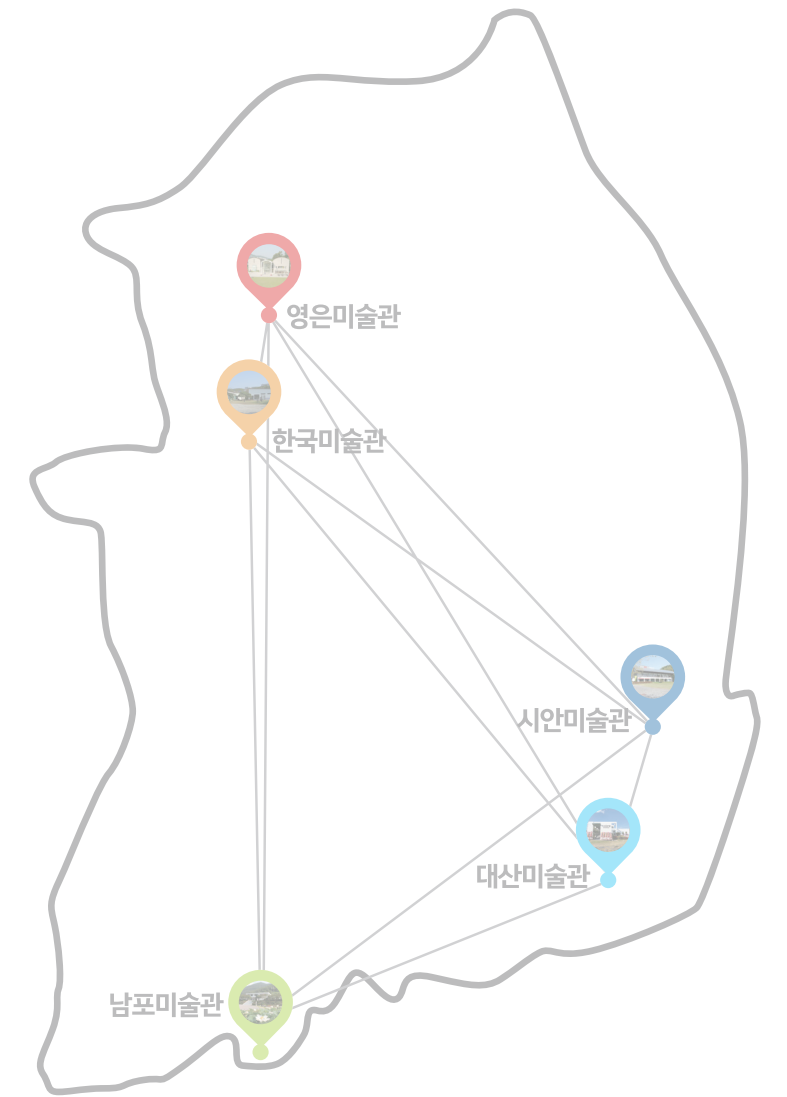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_예술의 정원

形 형

形 형

色 색

色 색



2023 MUSEUM WEEK Variety
The Garden of Art of Colors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_예술의 정원

形형 色色

形형 色色

4. 29 - 5. 28

김종욱, 민재이, 박은용, 송번수, 송 필, 이만나,
오쿠보에이지, 장준호, 진유영, 정경연, 최주휴, 최혜광

[영은미술관, 남포미술관, 대산미술관, 시안미술관, 한국미술관]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ICOM NMF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운영 영은미술관



연혁

대우문화재단 및 영문아트센터

- 1992. 08. 22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
- 1992. 09. 06 영문아트센터에서 운영하던 대우문화재단 운영까지
- 1992. 09. 07 영문아트센터 개관
- 1993. 03. 08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 1999. 03. 28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 1997. 01. 08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 1997. 11. 12 영문아트센터 개관식
- 1999. 12. 11 대우문화재단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 2000. 07. 18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 2000. 07. 18 영문아트센터 개관식
- 2000. 07. 18 영문아트센터 개관식
- 2000. 11. 04 영문아트센터 개관식
- 2001. 07. 28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 2002. 02. 04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 2002. 09. 01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 2002. 12. 21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 2007. 12. 29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 2008. 06. 28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 2014. 04. 29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 2014. 04. 29 영문아트센터에서 100주년 기념 미술관 개관식 개최

뮤지엄_예술의 정원 形色色형형색색 전시 전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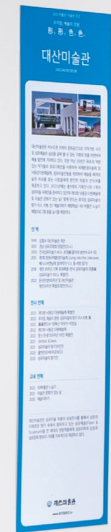


“형형색색 (形形色色); 모양이나 빛깔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예술 정원으로의 초대

영은미술관은 2023년 박물관 미술관 주간, 함께 만드는 뮤지엄의 연합전시로 “뮤지엄, 예술의 정원, 형형색색 形形色色” 축을 개최한다. 본 전시는 미술관의 자유와 협회의 기능이 강조되는 시기에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전국의 5개 기관 (영은미술관, 남포미술관, 대산미술관, 시안미술관, 한국미술관)의 연합전시이다. 각각의 뮤지엄은 관내에 정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장소 특정적 미술관이다. 각 지역에 위치한 뮤지엄의 정원의 조각 공원은 관람객들에게는 자연이 주는 자유로서의 “예술 정원”으로 공존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미술관의 “예술의 정원”은 형형색색(形形色色) 공공성을 가지고 문화 사업 등을 통해 각 지역사회에서 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 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시군 반대로 각 지방의 훌륭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연합전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기획되었다. 2023년 박물관 미술관 주간을 맞이하여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의 각 기관의 예술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개별적인 전시를 진행한다. 그리고 경기도 경주의 영은미술관에서 남포미술관의 박은용, 최주유 작가, 대산미술관의 송번수, 정경연 작가, 시안미술관의 오무보, 예이지 작가, 한국미술관의 김중욱 작가, 영은미술관의 민재이, 송필, 이만나, 장준호, 진유영, 최혜광 작가의 자연 친화적이고, 공간의 답론을 품은 작품으로 특별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동시에 전국의 각 기관을 의미 있게 소개하며 같은 기간 한 공간에서 기획 전시로서 보여주며 뮤지엄이라는 공간의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 이로써 참여하는 각 지역의 5개 기관을 문화와 예술 공간으로 연결짓고 참여기관들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앞으로의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역민들의 문화 경험을 높여 박물관 미술관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고, 예술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함으며, 다양한 각 지역의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추구 하고자 한다.

영은미술관 (YEMCA)



10

□ 영은미술관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22

□ 남포미술관
NAMPO ART MUSEUM

28

□ 대산미술관
DAESAN MUSEUM

34

□ 시안미술관
CIAN MUSEUM OF ART

40

□ 한국미술관
HANKUK ART MUSEUM

46

□ 에피소드
EPISODE

21

27

33

39

45

49

뮤지엄, 예술의 정원_형형색색(形形色色) 展을 개최하며..

영은미술관은 <뮤지엄, 예술의 정원_형형색색(形形色色) 展>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가 주최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하여 “함께 만드는 뮤지엄” 프로그램의 하나로 선정되어 영은미술관이 기획, 운영하는 전시입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는(ICOM) 1977년 총회에서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 이해 확산을 위해 매년 5월 18일을 ‘세계 박물관의 날’로 지정하고 매해 공통 지향주제를 선정하여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독려해왔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박물관, 지속가능성과 웰빙 (Museums, Sustainability and Well-being)’ 입니다.

본 전시에 참여하는 5개 기관 [영은미술관, 남포미술관, 대산미술관, 시안미술관, 한국미술관]은 자연을 품은 장소 특정적 미술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각 지역에 위치한 뮤지엄의 조각 공원들은 관람객들에게는 자연이 주는 치유로서의 “예술 정원”으로 공존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미술관의 “예술의 정원”은 형형색색(形形色色) 공공성을 가지고 문화사업 등을 통해 각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 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번 연합전시는 전국각지의 기관들과 그 예술적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작품을 소개하여 뮤지엄이라는 공간의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이로써 참여하는 지역민들의 문화 경험을 높여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고, 예술로서 정체성을 다잡으며, 다양한 각 지역의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함께 하는 뮤지엄” 프로그램을 주최·주관하여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연합전시에 참여 해 주신 남포미술관, 대산미술관, 시안미술관, 한국미술관의 관장님과 학예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은미술관 관장 박선주

Opening 'Variety of Colors(形形色色)_ Museum, The Garden of Art'

The Garden of Art is an exhibition directed and hosted by the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lected to be part of the "Together" program. "Together" is a collaborative program run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 Korea and overseen by the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to celebrate the 2023 Museum Week.

International Museum Day(IMD) is an international day held on May 18th, annually coordinated by ICOM. Each year a specific theme is highlighted to reflect on a relevant issue facing museums internationally. IMD provides an opportunity to raise awareness of the sociocultural role of museums towards the public. This year's theme is 'Museums, Sustainability, and Well-being.'

The five institutions selected for ICOM Korea's "Together" program: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Nampo Art Museum, Daesan Museum, CIAN Museum of Art, and Hankuk Art Museum, all possess a local setting in nature. The sculpture gardens across Gyeonggi-do, Gyeongsang-do, and Jeolla-do provide therapeutic relief to their visitors and a source of inspiration for the artists; a 'Garden of Art.' Additionally, each museum's 'Garden of Art' shares 'Variety of Colors(形形色色)' publicity through participation in local cultural projects. By focusing on diverse regional representation and eco-friendly artworks that highlight its attributes, we intend to lower the barriers to the museum space. By enriching the cultural lives of participating residents, we hope to contribute to museum sustainability, rediscover artistic identities, and stimulate cultural activities across diverse regions.

We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ward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COM Korea, and the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for directing the "Together Project," and towards Nampo Art Museum, Daesan Museum, CIAN Museum of Art, and Hankuk Art Museum, their directors, and curators in planning the collaborative exhibition.

YEMCA Director **Park Sunjoo**

형형색색(形形色色; 모양이나 빛깔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예술 정원

〈뮤지엄, 예술의 정원_형형색색(形形色色)〉展은 전국의 5개 기관이 함께하는 연합전시이다. 본 전시는 미술관의 힐링의 기능이 강조되는 시기에 경기도(영은미술관, 한국미술관), 경상도(대산미술관, 시안미술관), 전라도(남포미술관)의 5개 기관이 '예술의 정원'이라는 공통 주제로 계획되었다. 이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뮤지엄은 관내에 정원이라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뮤지엄의 정원은 자연, 힐링, 웰빙 등의 단어들로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미술관은 이 정원을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공간으로서, 지역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장소로, 때로는 관람객들이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 지는 곳이다.

이처럼 이번 연합전시는 '웰빙'의 공간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이 정원을 활용해 뮤지엄의 문턱을 좀 더 낮추고자 기획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함께 만드는 뮤지엄」으로 이번 기획이 최종 선정되어 "뮤지엄, 예술의 정원"을 주제로 5개 기관이 특별전시를 진행하게 되었다.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의 한국미술관, 대산미술관, 시안미술관, 남포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추어 각 미술관의 예술적 특성이 드러나는 개별의 전시를 진행하고, 예술의 정원을 가진 미술관들의 이번 특별전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연합전시가 영은미술관의 제3전시장과 야외조각공원에서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그 거점 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반대로 각 지방의 훌륭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연합전시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모순된 현상을 극복하고자 기획되었다. 〈뮤지엄, 예술의 정원_형형색색(形形色色)〉展에는 경기도 광주의 영은미술관에서 남포미술관의 故 박은용, 최주휴 작가, 대산미술관의 송번수, 정경연 작가, 시안미술관의 오쿠보 에이지 작가, 한국미술관의 김종옥 작가, 영은미술관의 민재이, 송필, 이만나, 장준호, 진유영, 최혜광 작가의 자연친화적이고, 공간의 담론을 품은 작품으로 특별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예술작품과 더불어 전국의 각 기관을 의미 있게 소개하며 같은 기간 한 공간에서 기획 전시로서 보여주는 기획을 통해 영은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각 지역의 아름다운 미술관을 가치 있게 소개하는 것에 의의(意義)를 두었다. 이로써 참여하는 각 지역의 5개 기관을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공간으로 연결 짓고 참여기관들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예술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전시를 계기로 각 뮤지엄이 속한 지역 및 미술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은미술관 학예팀장 정효정

Variety of Colors (形形色色; diverse shapes and sizes) The Garden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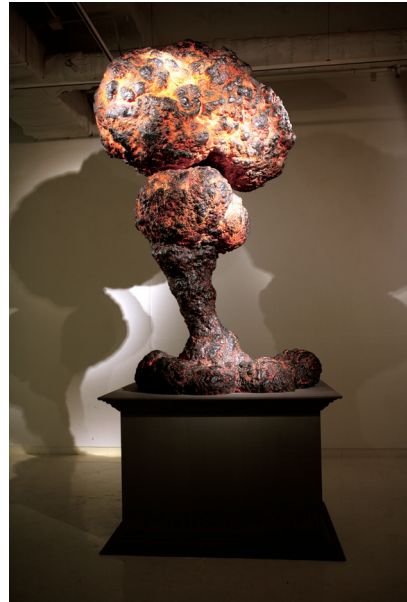
The Garden of Art is a collaborative exhibition between five regional institutions nationwide. This exhibition was planned across three regions,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Hankuk Art Museum in Gyeonggi-do, Daesan Museum and CIAN Museum of Art in Gyeongsang-do, and Nampo Art Museum in Jeolla-do under the common theme of 'Garden of Art.' As implied in the title, each museum has a garden area in common which could be understood under keywords such as nature, healing, or well-being. Each museum uses the garden as a sculpture garden for regional events and general relaxation for visitors.

As such, this exhibition serves as a collaborative attempt to utilize the garden space as an opportunity to lower the barriers of the museum space into an area of 'well-being.' As mentioned earlier, the five museums were selected as a part of the "Together" program under the 2023 International Museum Week project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By International Museum Week, each museum will display an exhibition that highlights their artistic qualities, and a collective exhibition of the collaborative efforts will occur at the YEMCA Exhibition Hall 3. Its sculpture garden starts on the 29th of April through the 28th of May.

Various and diverse artistic activities have been populating urban areas; simultaneously, there exists a need for more awareness of the sheer richness of culture and art within rural areas. The collaborative exhibition attempts to overcome this issue. In 'Garden of Art,' YEMCA of Gwangju-si introduces the works of Park Eun Yong and Choi Joo Hyu of Nampo Art Museum, Song Burn-Soo and Chung, Kyoung Yeon of Daesan Museum, Eiji Okubo of CIAN Museum of Art, Jongock Kim of Hankuk Art Museum, Min J, Song Feel, Lee, Manna, JJang Jun Ho, Tchin Yuyeung, Choi Hey Kwang of YEMCA. The eco-friendly qualities of their work will interact and display the stories of the space through this unique exhibition. In extension, each regional institution will be introduced meaningfully by sharing the same area and time for the viewers to acquaint themselves with all five aspects of each three regions. This has also laid the groundwork for future collaboration and artistic communication.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can ultimately be an opportunity to foster and cultivate more cultural development by spreading the word about each museum and its associated regions.

YEMCA Senior Curator Jung Hyojung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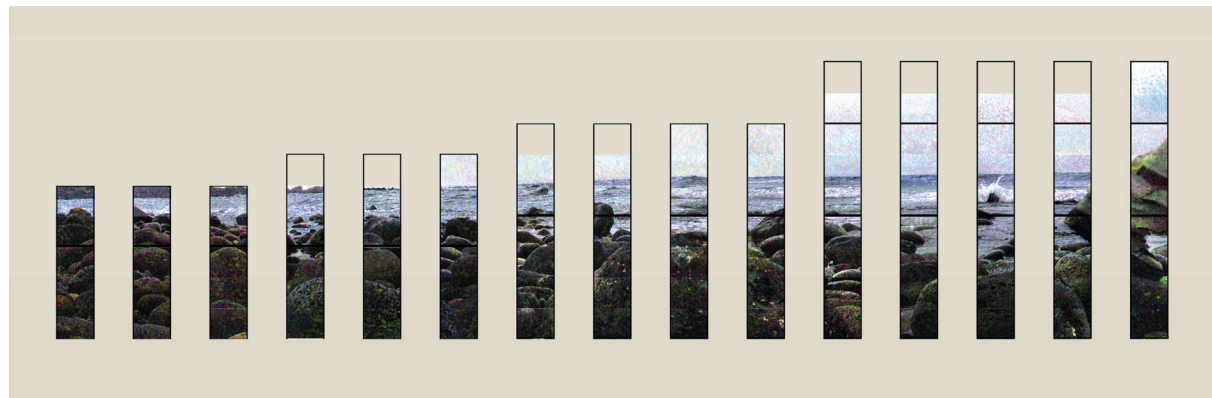


송 필 Song Feel (1970~)

송필의 작품 <기념비>는 타의에 의해 정해진 빛이라는 존재의 양면성을 커다란 좌대 위에 올려진 핵폭발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로 선보인다. 송필의 작품은 인류애에 대한 상실, 폭력의 그늘을 조형적으로 상징화하는 작품으로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의 그늘을 기념비처럼 새김으로써 항상 삶과 역사를 뒤돌아보는 역할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형상화된 빛은 스스로 지닌 가치와 부여된 가치의 간극에 대한 고민으로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응원하려는 숨은 의도를 건네고 있다.

Song Feel's works formally symbolize the loss of love for humanity and the shadow of violence, and contain the content as a role that always looks back on life and history by carving the shadow of violence existing in the modern society like a monument.

기념비
1600x1200x2700mm, FRP, 2019



디딤-쇠소깍C35P113
2100x6300cm, 사진에 수채, 디지털, 2004

진유영 Tchin Yuyoung (1946~)

진유영은 아주 낮은 위치에 카메라를 두어 촬영한 사진을 스캔한다. 작가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스스로 낮추며 겸허한 자세로 다가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작가는 컴퓨터상에 나타난 스캔한 사진의 디지털이미지 화소를 부분적으로 지우고 프린트해 다시 수채화 작업을 한다. 이는 현재 위치한 회화의 출구를 찾고자 시도하는 동시에 막연한 이미지나 허상으로 느껴졌던 대상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다.

Tchin Yuyoung attempts to find the exit of the painting he is currently located by scanning the picture, partially erasing the pixels of the digital image that appeared on the computer, and then printing again and doing watercolor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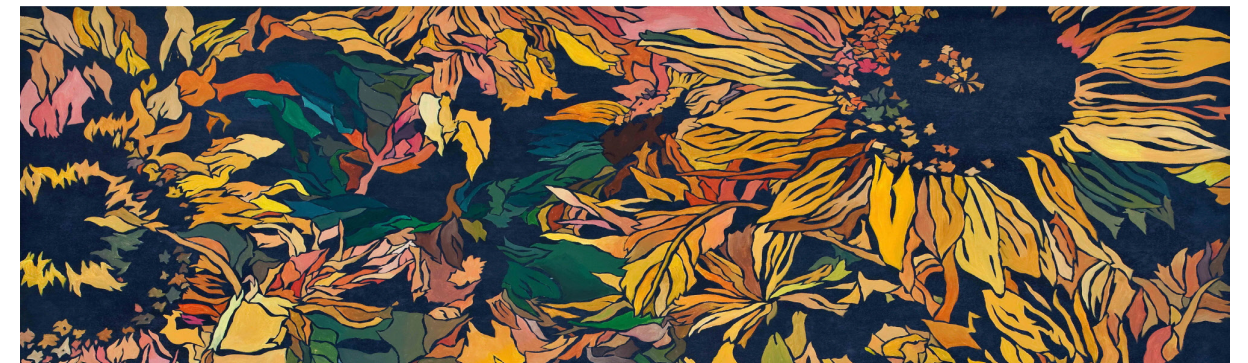


완벽하게 드러난 선
가변설치, 나무, 2020

장준호 Jang Jun Ho (1980~)

장준호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그 속에 존재하는 사물을 관찰하고,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둘 사이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드러내어 작품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집과 함께 방치되어 아직 본래 용도로 쓰임이 충분하지만 버려진 물건들을 작업실로 가져와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전시장의 주인공으로 다시 주목 받는 작품을 만들어왔다. 이를 통해 사물들이 담고 있는 기억을 형상화하고 우리의 모습을 유추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Jang Jun Ho observes the environment around him and the objects that exist in it, discovers and reveals the story between the two that is not revealed on the surface, and presents it as a work of art. He assumes that trees with fluid and sensuous lines are the most perfect line and presents them in his works.



Division by shape #4
280x946cm, 벽화, 2012

민제이 Min J (1986~)

Min J는 평소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외국여행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작가는 인간의 외형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듯 만물 또한 형상보다는 기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형상에 대한 기의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함으로써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한다. 그렇기에 형과 색이 명확하지 않아도 사물을 표현할 수 있다. 작가는 자연과 합일하는 내적 생명질서 자체에 근원적 가치를 두고, 자연에 내재된 합일 원리에서 영감을 얻어 남다른 회화세계를 창출하고자 한다.

Min J seeks to express the cosmic order of nature in her paintings, inspired by the principle of unity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through her own experience. Through the division of space divided by lines taken from natural forms, the artist depicts the beauty and significance.

이만나 Lee, Manna (1971~)

이만나 작가는 한국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독일로 건너가 또 다른 작업을 모색했다. 낯선 곳에서의 문화적, 언어적, 세대 차이로 새로운 '벽'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벽'으로 인해 낯설게 다가오는 대상을 투영시켜 작품으로 마주하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대화하였고, 모든 대상의 해결책 혹은 실마리를 찾게 되는 계기를 찾게 되었다. 이만나 작가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 속에서 낯설게 대면한 장소, 그 공간의 울림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Lee, Manna believes that the 'wall' is a medium through which many things that exist in this world can be seen constantly and symbolizes a series of processes. This induces the artist and everyone who views the work to project many things through the wall in the work.



눈정원
194x259cm, 캔버스에 유채, 2013



안녕하세요
(좌)110x120x60cm, (우)140x180x80cm, 화강암, 우레탄 도장, 2007

최혜광 Choi Hey Kwang (1970~)

최혜광 작가는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인 기린을 살색의 피부와 빨간 털, 파란색 장화를 신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작가는 어린 시절 로봇태권비이를 보며 지구의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꿈을 꾸었고, 은하철도 999를 보며 기차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했으며, 심심했던 어느 오후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누군가 나와 놀아주길 원했던 그 시절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이번 작품은 초등학교생이었을 때 처음으로 서울로 놀러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던, 그러나 마냥 즐거웠던 기억을 작품으로 제작한 것이다.

Choi Hey Kwang expresses the giraffe, familiar to children, in tan skin, red hair, and blue boots. Through his works, Choi reflects on his childhood dreams of space travel, world peace, or simply a playmate on a lonely afternoon. This work is a representation of Choi's first memories of Seoul as an elementary schooler, back when everything was fascinating and strange, all in bliss.





영은미술관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재단법인 대유문화재단 영은미술관은 경기도 광주시의 수려한 자연림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본 미술관은 1992년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필두로 삼은 대유문화재단의 설립과 더불어 2000년 11월에 개관하였다. 영은미술관은 동시대 미술을 연구, 소장, 전시하는 현대미술관이자 국내 초유의 창작 스튜디오를 겸비한 복합문화시설의 형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작가, 평론가, 기획자, 대중 등이 서로 만나고 연결되어 미술관 자체가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미술 현장이 되길 지향한다. 종합미술문화단지의 성격을 향하는 영은미술관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창작, 연구, 전시, 교육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여 참여계층을 확대하고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문화축매공간이 되고자 한다.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has been changed from a classic museum focusing on the function of only studying, collecting, and showing artworks to a newly founded multi-cultural space where art studios coexist. Furthermore, nowadays Youngeun exists as a living place of art. And we have a goal of becoming a place where artists, critics, curators, and the public can meet together.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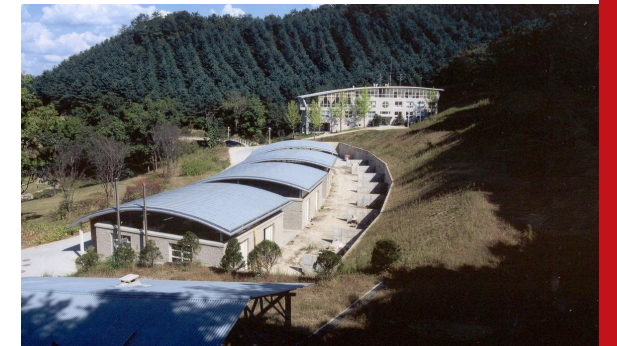
- 1992 문화체육부로부터 공익법인 대유문화재단 설립허가
- 2000 영은미술관 개관
- 2006 2회 경기도박물관인상 특별공로상 수상 : (재 대유문화재단 설립자·이사장)故 이준영
- 2014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평가 전시부문 우수기관 표창
- 2022 박물관미술관 유공자 도지사 표창
- 2022 광주시 문화예술 유공자 표창 수상
- 2023 한국박물관협회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전시 부문)

교육 연혁

- 2022 자체교육프로그램 YESDAY 9기
- 2022 제15회 어린이날기념 힐링미술대회
- 2022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 2022 박물관·미술관 주간_영은미술관과 함께하는 예술과 전통의 만남
- 2021 제 4회 청소년미술제 공모
- 2021 박물관·미술관 주간_영은미술관과 함께하는 예술과 공간의 만남
- 2021 미술주간_뮤지엄 피크닉
-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_신비한 예술세계에 빠져들다, 나도 현대미술가

전시 연혁

- 2023 뮤지엄, 예술의 정원: 형형색색(形形色色)
- 2023 한국의 네오모더니스트: 氣오스모시스 조각과 회화
- 2023 영은아티스트프로젝트 12기
- 2022 아낌없이 주는 예술_삶 속에 스며들다
- 2022 YEMCA COLLECTION 회상
- 2022 5회 공간프로젝트展3인3색공간_ N개의순간:김은진, 박현주, 한홍수
- 2021 점선면색_추상미술의 경계확장
- 2021 Young&Young Artist Project_기억을 잇다
- 2020 20주년 특별기획전 "영은지기, 기억을 잇다" 1부 진실되게 / 2부 꾸준하게 / 3부 가치있게



영은미술관은 국내 초유의 복합문화단지로서 계획된 공간이다. 기존 미술관과는 달리 전시장·창작스튜디오·강의실·멀티교육실·야외조각공원·야외 교육 공간·몽골텐트 옥상 교육 공간 등, 한 공간 속에 다양한 성격의 전문 공간이 공존한다. 따라서 장소의 특화성을 심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

2005년 폐교를 활용하여 개관한 남포미술관은 3,000여 평의 운동장을 정원으로 조성하여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과 공유함으로써 문화향유와 힐링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도서벽지 문화 소외지역에 미술관을 열고 18년 차, 개관 과정부터 지리적 여건, 인력 확보 등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어오면서도 지역사회 문화 중심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모한 도전이자 열정이었지만, 지역 미술관의 운영자로서 내가 가진 모든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특히 소록도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는 나로서는 미술 창작활동을 취미 삼아 여가를 선용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고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있을 터인데 원치 않는 병마에 시달리며 윤택된 삶을 살아왔던 소록도 주민들로서는 자신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 문화 취약계층에게 가장 진솔한 나눔의 방식은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과 교류라고 생각했기에 특별전시“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록도 주민들과 (사)한국미술협회 고흥지부 회원들이 마음을 열어 마주 보고 격려하며, 서로의 예술세계에 공감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함께 만드는 뮤지엄’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표관 영은미술관이 진행하는 연합전시에故 박은용 화백과 최주휴 화백의 작품을 소개한 것은 이 지역 출신 작가의 우수한 역량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각 미술관의 특성을 살린 전시연계프로그램과 특별전시를 기획, 운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경계 없는 예술의 정원이자 지속 가능한 웰빙 공간으로 인식되기를 기대해본다.

남포미술관 관장 **곽형수**

“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함께 만드는 뮤지엄’의 일환으로 남포미술관이 운영하는 특별전시“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와 소록도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시연계 미술창작프로그램“협업으로 공유하는 예술”은 문화적 소외를 겪어 왔던 소록도 주민과 (사)한국미술협회 고흥지부 회원들이 상호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연대감을 형성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전시에 참여하는 소록도 주민들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온 문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포미술관은 2005년 개관 이후 소록도 주민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그림 그리기에 관심을 보였던 주민들이 모여 2016년 소록도 최초의 예술단체인 해록예술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때문에 제한되었던 일상의 무료함을 극복하고 취미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보고자 뜻을 같이했던 회원들은 그동안 무려 26회의 전시회를 통해 왕성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록도 해록예술회원이 출품한 24점의 작품은 2023년 4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두 명의 강사가 소록도를 방문하여 주 4일씩 20회 진행한 미술창작프로그램의 결과물입니다. 서투르지만 열심히 그려낸 순수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남포미술관은 소록도 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관과 정원을 연계한 ‘미술관은 즐거운 놀이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함께 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록도 해록예술회가 지역 미술 단체와 격의 없이 마주 보며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나가는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보장,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제와도 부합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미술관의 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확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면서 짧은 전시준비 기간에도 소록도 해록예술회원 및 (사)한국미술협회 고흥지부 회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남포미술관 부관장 **조해정**



2005년 2월 19일 전남 제1호 등록, 1종 미술관으로 개관한 남포미술관은 곽형수관장의 선친께서 세운 사립중학교가 농어촌학생수 감소로 폐교된 후 학교건물을 활용한 미술관이다. 숭고한 육영정신으로 낙후된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었던 선친의 雅號를 빌어 미술관 명칭을 南浦로 정하였고, 설립취지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관과 별관에 위치한 6개의 전시장을 비롯하여 공연장과 창작교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2대째 대물림 된 3,000여평의 학교터는 2019년 문화기관으로서 최초로 <전라남도민간정원 제10호 하담정>으로 등록되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미술관을 빛나게 하는 정원이자 치유와 힐링의 장소로 널리 알려져 연간 50,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생활친화적문화공간이다.

연혁

- 2005 남포미술관 전라남도 제1호 등록, 개관
- 20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2014 박물관·미술관 발전 공로 국무총리 표창
- 2020 농촌 지역사회 기여 우수 박물관·미술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상)
- 2021 '대통령상' 수상(문화예술부문 한센인 복지증진 공로), 개관 15주년 백서 발간

전시 연혁

- 2023 조성호-자연의 산책
- 2023 뮤지엄, 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
- 2023 서양화가 민병각-탐화 여정 60년
- 2022 나의 섬, 悠幽하다
- 2022 박구환 초대전 화상-바람이 분다
- 2022 이기월 초대전-노스텔지어
- 2021 임병기 화백 기증작품전
- 2021 박은용-영혼의 탐
- 2021 INVISIBLE
- 2020 이한우 화백 초대전-아름다운 우리 강산
- 2020 올해의 선정작가 릴레이 전시
- 2020 장안순 초대전-소리를 보다

교육 연혁

- 2023 협업으로 공유하다-소록도(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 2022 전시연계-감상 및 창작(나의 섬, 유유하다)
- 2021 전시연계-감상 및 창작(INVISIBLE)
- 2021 소록도 주민과 함께 하는 미술교육아카데미
- 2020 전시연계-감상 및 창작(채수평 작가와 함께)
- 2020 전시연계-감상 및 창작(장안순-소리를 보다)
- 2020 미술관은 즐거운 놀이터(영남초등학교)
- 2020 소록도 주민과 함께 하는 미술교육아카데미

남포미술관은 6개의 전시장을 비롯하여 공연장, 창작교육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팔영산 자락 아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3,000여평의 부지는 아름다운 정원 하담정(전라남도민간정원 제10호)으로 널리 알려져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사계절 외지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고흥의 명소가 되고 있다.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

전시일정 : 2023. 5. 23 ~ 6.14



참여작가 소록도해록예술회 김기춘 외 11명, (사)한국미협 고흥지부 이정식 외 14명, 총 27명 참여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함께 만드는 뮤지엄'의 일환으로 남포미술관이 운영하는 특별전시"예술의 정원, 경계의 벽을 허물다"와 소록도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시연계 미술창작프로그램"협업으로 공유하는 예술"은 문화적 소외를 겪어 왔던 소록도 주민과 (사)한국미술협회 고흥지부 회원들이 상호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연대감을 형성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공동으로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그림 그리기에 관심을 보였던 주민들이 모여 2016년 소록도 최초의 예술단체인 해록예술회를 창립하였다. 이번 전시에 소록도 해록예술회원이 출품한 24점의 작품은 2023년 4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20회 진행한 미술창작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서투르지만 열심히 그려낸 순수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감동을 느끼게 한다.

5개관 연합전 + 10인10색전 ‘예술의 정원을 거닐다’

유유히 낙동강 본류가 흐르는 창원특례시 끝자락 낙동강변 유등리에 위치한 대산미술관은 올해 개관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등록 제1종 사립미술관으로 개관이후 지난 25년간 176회의 기획전시와 1,200여회의 미술관교육을 개최해 왔습니다. 특히 소외 지역 주민들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낙동강 다원예술제를 13회 기획하여 미술관 특별전과 다원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섬유미술전시를 25년간 지속적으로 기획 소개해 왔으며, 국내외 섬유 미술 분야의 원로, 중진, 청년작가들을 지역에 소개하는 유일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섬유미술의 맥을 잇고 있는 대산미술관은 1999년 1월 소외된 농촌 속의 전원미술관으로 개관한 후 지난 25년간 176회의 특별전과 3,765여명의 작가 참여, 그리고 1,200여 회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해왔습니다. 개관 25주년 제1종 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 이후 홈페이지 방문조회 1,200만명 돌파를 기념하고, 올해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공모사업인 ‘함께 만드는 뮤지엄’ 특별전 ‘예술의 정원을 거닐다, 섬유미술의 향기 10인10색展’과 ‘제13회 낙동강 다원예술제 특별전 현대미술 & 섬유미술 55人展’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세계박물관 대회, ICOM 프라하의 The Power of Museum(박물관의 힘)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이번 전시의 기획목적은 대산미술관 개관 25주년과 5월 가정의 달에 즈음하여 가족단위의 관람객 및 장애인단체 및 개인을 위한 섬유소재의 재료, 기법, 친근감 있는 보자기, 청바지, 버려진 옷, 섬유패브릭 등 10인, 55인의 특별전과 트리허그(나무옷입히기), 페브릭조형(만들기), 나만의 T셔츠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웰빙과 즐거움이 있는 예술정원의 특색이 잘 살아나도록 공동기획 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주간 및 가정의 달 5월에 열리는 이번 특별전시는 뮤지엄의 지속가능성과 웰빙에 초점을 맞추어 뮤지엄 방문의 문턱을 낮추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기획하였고, 이번 특별전에 참여하는 전국의 5개 기관은 뮤지엄 내에 정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특색에 맞는 전시를 각자 진행하며 이에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시에 참여하는 5개 사립미술관들의 연합전시가 2023년 박물관 미술관 주간에 열리고 있습니다. 본 전시는 각 지역에 위치한 미술관을 소개하고 각 미술관의 아카이빙과 함께 각 기관의 예술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1-2명의 작가의 대표작품 1-2점을 한 공간에서 보여줍니다. (연합전시 장소 - 영은미술관 제 3전시장 및 야외조각공원) 전시에 참여해주신 원로, 중진, 지역작가님들과 후원해주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산미술관 관장 김철수

‘섬유미술의 향기 10인 10色展’

대산미술관은 1999.1.9. 낙동강변에 개관한 이래 소외된 농어촌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 장애인에 문화향유의 기회제공과 예술문화를 선도해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지역기반 시각 및 섬유예술의 실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획의 장을 마련하여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5년간 국내외 역량 있는 섬유미술작가들의 초대기획전을 비롯하여 국제환경미술제 및 낙동강다원예술제, 섬유미술전 등을 개최하여 예술을 매개로 삶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산미술관 개관 25주년에 즈음하여 섬유미술의 다양한 분야의 원로·중진 작가들을 초대하여 대산미술관의 정체성인 섬유미술의 맥을 잇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섬유미술의 즐거움과 웰빙, 그리고 친근감 있는 보자기, 실타래, 청바지, 마스크 등 버려진 섬유소재를 재활용 작품으로 재탄생하여 예술로 승화시키고, 낙동강변 자연속에서 가족단위 관람으로 즐거움이 있는 웰빙의 ‘섬유예술의 정원을 거닐다’ 10인 10色展을 기획하였습니다.

대산미술관은 올해 지속가능한 웰빙과 성찰속에서 섬유예술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술의 다채로운 향기 속에서 꽃피우고 있는 섬유조형(Fiber art & Sculpture) 패브릭의 미적 감성과 미술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속의 의·식·주 중의 가장 첫 번째에 오는 의복의 재료이기도 한 섬유를 소재로 활용 가능한 기법으로는 ①한지공예 ②태피스트리 ③텍스타일 등이 있으며, 이번 특별전에서 다양한 섬유미술의 기법과 장르를 소개하고 체험하며 즐기는 관람에 중점을 두고 ‘섬유예술의 정원을 거닐다’ 10인 10色展을 기획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주간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을 소개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기획하였고, 이번 특별전 ‘섬유예술의 정원을 거닐다’ 10인10色展에 참여하는 섬유미술 작가 10명의 대표작품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섬유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전시기획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전시에 참여하는 5개 사립미술관들의 개성이 묻어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산미술관의 특별전시는 창원지역에 위치한 대산미술관을 소개하고 미술관의 역사, 교육, 전시연혁 등 관련 아카이빙과 함께 대산미술관의 예술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12명의 섬유미술 작가의 대표작품을 한 공간에서 보여줍니다. (특별전시 장소 - 대산미술관 제 2전시장 및 야외조각공원) ‘섬유예술의 정원을 거닐다’ 10인10色展 특별전시에 참여해주신 원로, 중진, 지역작가님들과 후원해주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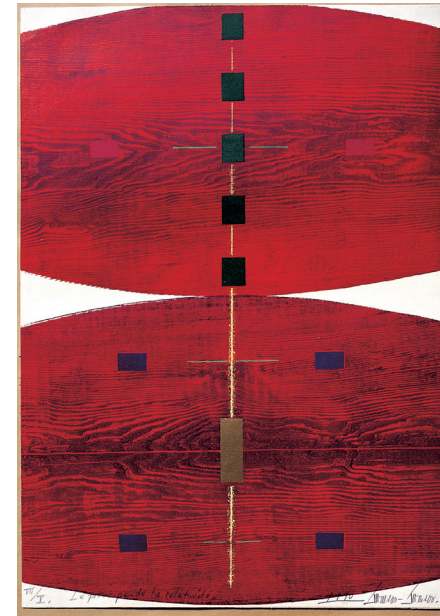
대산미술관 학예실장 추병곤



송번수 Song, Burn Soo (1943~)

1960년대 판화작가로 화단에 등단한 그는, “작가란 본질적으로 시대의 기록자요, 감시자이고, 나아가 비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확고한 작가관을 가진 그는 1972년도 《A.G》판화전에서 <남북간통일원칙합의> 작품을 400장의 판화로 제작하여 부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1980년대 말부터 그의 판화에서 나타나는 나뭇결질감을 바탕으로 하는 좌우대칭 형태의 <상대성 원리>시리즈는 삶과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균형’으로 본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동시에 대형 타피스트리로 제작되었다.

In the 1972《A.G》print exhibition, Song, Burn Soo made 400 prints of the <Agreement on the Principles of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produced in 400 prints and was accompanied by a rooting performance in 1972. Since the late 1980s, he has been working on The Relativity principle" series reflects the artist's worldview of 'balance' as the essential principle of life and the universe. The work demonstrated the artist's worldview of balance as the most critical principle of life and the universe. It was simultaneously produced as a large-scale tapestry.



상대성 원리
107x75cm, 세리그라피, 목판화, 1992

정경연 Chung, Kyoung Yeon (1955~)

정경연 작가는 장갑이란 소재를 일관하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모색한다. 흔히 자기세계에 빠져 안주해버리는 타입의 작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근래의 변화에서 두드러진 것은 평면화와 풍부한 색채의 원용이다. 입체에서 평면으로의 회귀는 자연 풍부한 색채의 동반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장갑이란 소재가 지니는 신체적인 표정과 그것들이 얽혀 만들어내는 구조적 조형성에서는 옛 볼수 없는, 어쩌면 더욱 간결하면서도 깊이를 추구하는 변화의 내역이 아닌가 본다. 화사하면서도 깊은 내면으로의 침잠은 작가로서의 더욱 풍요로운 완숙에로의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하다.

Chung, Kyoung Yeon seeks various changes in the material of gloves while remaining consistent. In particular, the most notable changes in recent years are flatness and the use of rich colors. The return to the flat from the three-dimensional requires the accompaniment of rich natural colors. It is a history of change that seeks a more concise and profound meaning that cannot be seen in the physical expression of the glove material and the structural formability they intertwine to create.



어울림 2021-02
145.5x112.1cm, Mixed technique & Mixed media
(혼합기법 및 재료)



대산미술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지역기반 시각 및 섬유예술의 실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획의 장을 마련하여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5년간 국내외 역량 있는 작가들의 초대기획전을 비롯하여 국제환경미술제 및 낙동강다원예술제, 섬유미술전등을 개최하여 예술을 매개로 삶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9개의 기획전시와 2개의 섬유미술 국제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13회 낙동강 다원예술제 및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함께 만드는 뮤지엄 섬유미술의 향기 10인 10색展/ 예술플러스 체험학습/ KB 박물관 노닐기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혁

- 1999 김철수 대산미술관 개관
- 2001 경남 섬유조형회 창립전(25인)
- 2005 전국섬유미술가 40인 초대展(홍익대 송번수교수 외)
- 2015 제1회 창원국제환경미술제 (Jump into the Unknown, 베니스비엔날레 참여작가 17인 등 41명 참가)
- 2018 개관 20주년 기획 초대특별-한국 섬유미술의 흐름展 (섬유미술가 100인 특별전)
- 2022 문신탄생100주년 및 대산미술관 개관24주년 특별초대전(110인)

교육 연혁

- 2022 KB박물관 노닐기
- 2021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 2020 예술플러스

전시 연혁

- 2023 제13회 낙동강 다원예술제 특별전
- 2023 뮤지엄, 예술의 정원: 섬유미술의 향기 10인 10색 展
- 2022 羅羅랜드Ⅳ-영축산 이야기-이영실
- 2022 제12회 낙동강 다원예술제
- 2022 문신 탄생 100주년 110인 특별전
- 2021 3Artists 3Colors
- 2021 섬유미술의 향기30인전
- 2020 출현전(EMERGENCE)
- 2020 섬유미술의 향기전

대산미술관은 섬유미술 작품의 상설전시를 통해서 섬유의 다채로운 향기 속에서 꽃피우고 있는 섬유예술(Fiber & Sculpture)을 전 세대의 관람객들에게 섬유미술의 감성과 섬유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예술의 정원_섬유미술의 향기 10인 10색

전시일정 : 2023.5. 2 ~ 6. 30



참여작가 송번수, 정경연, 김현태, 이미경, 윤정희, 신지혜, 정동림, 양상훈, 김경선, 김소현

한국 섬유미술의 맥을 잇고 있는 대산미술관은 섬유예술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술의 다채로운 향기 속에서 꽃피우고 있는 섬유예술(Fiber art & Sculpture)로써 패브릭의 친근감을 가지고 미적 감성과 미술문화의 웰빙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보자기, 실타래, 청바지, 마스크 등 버려진 섬유소재를 재활용 작품으로 재탄생하여 예술로 승화시키고 낙동강변 자연속의 대산미술관에서 가족단위 관람으로 지속가능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 기타 프로그램 : 1.미술관 예술플러스 체험학습 2. KB 박물관 노닐기 체험학습

예술의 정원을 거닐며...

《2023 함께 만드는 뮤지엄》사업의 일환으로 시안미술관에서는 <뮤지엄, 예술의 정원- 위대한 여정>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합 전시인 '뮤지엄, 예술의 정원'의 기획 의도는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그 개념을 확장하고 위축되어 있는 현대인에게 예술을 통해 치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5개 미술관이 연합하여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시안미술관은 미술의 영역을 자연으로 확장시켜 '자연', '순환', '환경' 등의 키워드로 표현되는 대지미술(Land Art)이라는 장르를 관객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동아시아가 가지는 특유의 정신성을 대지미술에 녹여낸 오쿠보 에이지의 작품을 통해 '환경', '자연과의 호흡' 그리고 '치유'라는 본사업의 주제를 유의미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오쿠보 에이지(Eiji Okubo)는 일본의 1세대 대지미술가로서 고대시대부터 대륙의 영향을 받은 일본 문화의 원류를 추적하는 여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정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창작은 '걷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자연과 교류하는 여정 속에서 오쿠보 에이지는 1980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국을 찾았고 김구림, 박현기 등과 같은 작가들과 교류하며 한국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안미술관과는 2005년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한국과 일본의 교류전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그의 여정에 있어 정신적이고 원류적인 측면을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오쿠보 에이지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 정신성을 작품에서 드러내는데, 이는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의 균형적인 조화에 크게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도록 설계된 그의 작품은 생명이 태어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한편, 예술은 자연 속에 있으며 자연을 거니는 우리는 누구라도 미적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이번 연합 전시《2023 함께 만드는 뮤지엄-뮤지엄, 예술의 정원》을 관람한 관객들은 기분 좋은 사색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미술관이 함께 준비하는 것임과 동시에 규모가 큰 사업이라 힘든 점도 많았겠지만, 시기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함께 좋은 이야기를 만든 영은미술관, 남포미술관, 대산미술관, 한국미술관 관장님들과 학예사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안미술관 관장 변숙희

Walking on the Quest – 위대한 여정

대지미술(Land Art, Earth Works)은 196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실험적 예술이다. 대지미술은 모더니즘적인 미술, 즉 화이트 큐브(White Cube: 미술관 혹은 박물관)의 권력에서 벗어나 예술을 더 자유롭게 확장하여 표현하고자 시작되었다. 초기의 대지미술가들은 미술관과 갤러리의 전시 공간에 한정되어 있던, 그리고 상업적 틀 안에 갇혀 있던 예술을 대자연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방출시켰다. 다시 말해, 자연을 캔버스에 옮기기만 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대지미술은 자연 자체를 캔버스 삼아, 자연 속의 미술을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대지미술은 풍경(자연) 자체를 편집하거나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 환경에서 거대한 스케일로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대지미술의 경우, 서구권과 시기는 비슷하였으나,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로부터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대지미술은 서구권의 대지미술과 약간의 유사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만의 문화적, 철학적 접근 방식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미학과 전통적 가치에 뿌리를 둔 일본의 대지미술은 작품과 자연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데, 이 접근 방식은 선불교나 신도이즘(Shintoism)으로부터 비롯된 담백함과 무상함 그리고 자연적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와비사비(wabi-sabi) 개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대지미술의 특징을 오쿠보 에이지의 작품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는 일본의 1세대 대지미술가로서 일본 특유의 문화적 정신성을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했고, 때문에 그의 작품은 작품과 주변 환경의 조화와 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는 일본 특유의 대지미술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오쿠보 에이지의 작품은 돌, 나무, 식물과 같은 자연 요소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배치하고, 풍경의 미학적 시선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색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의 대부분의 작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도록 설계되어 자연의 힘에 반응되도록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장소 특정적이기도 하면서 시간 특정적이기도 하다. 요컨대 일반적인 대지미술이 예술과 자연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에 도전하려는 경향이 짙은 반면, 오쿠보 에이지의 작품은 모든 요소의 조화와 상호 연결성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오쿠보 에이지의 작품은 작품과 주변 환경이 가지는 각각의 내러티브 간의 미묘한 연결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성은 오쿠보 에이지가 예술 실천의 태도로써 수행하고 있는 '걷기'로부터 시작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그는 작품의 완성보다는 제작 과정을 중시하며, 걸으면서 수집한 것을 그곳에서 선별한 돌과 나무를 이용하여 환경에 콜라주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또한 그곳을 스스로가 걷고 통과한 증거로서 그 땅을 기록하는 형태가 작품으로 드러나는데, 오쿠보 에이지에게 이 '걷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수단이자 존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오쿠보 에이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형상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

시안미술관 큐레이터 박천



뮤지엄_예술의 정원 形形色色형형색색 전시 전경입니다



걷는 자의 발
410x270cm, 광목에 종이죽, 흙, 작가의 발, 2019

오쿠보 에이지 Eiji Okubo (1944~)

오쿠보 에이지(1944, 일본)는 1세대 대지 미술가로 자연 속에서 '걷기'라는 행위를 통해 미술의 가장 깊은 뿌리를 찾고자 한다. 오쿠보 에이지는 말한다. '걷기'는 작가만의 조형언어를 생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그 자체로 미적 의미를 지닌다. '걷는다'는 행위를 매개로 자연에 대한 동경과 예찬이라는 오랜 화두를 탐구해 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형식의 퍼포먼스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화를 연결시키는 일종의 생태학적 알고리즘(algorithm)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대지미술가로 그의 작품 대부분은 자연물을 채집하여 제작하고 전시가 끝나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주로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의 작업은 기록과 흔적의 연속이며 역사가 작품이 된다. 그의 드로잉 작품은 그가 자연물 설치를 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과정의 산물이며 그는 유기적인 형태와 비정형적인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오랜 시간 구상을 하고 그 형태를 구축하는 일종의 계획서이기도 하다.

Eiji Okubo (1944, Japan) is a first-generation earth artist who uses "walking" in nature to find the deepest roots of his art. To find the deepest roots of art. Eiji Okubo says, "Walking is the most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means of generating the artist's formative language and has its aesthetic meaning. "Walking" explores the long-standing themes of longing and reverence for nature through the medium of movement and these. It is a new form of performance and an ecological algorithm connecting different cultures. The ecological algorithm combines various cultures; He is an earth artist and his works. Most of his works are made by gathering natural objects and returning them to nature after the exhibition. Therefore, his work is mainly photographed or recorded, and his work is a continuation of records and traces. Traces and history become artwork.



시안미술관은 2004년 시안아트센터로 설립되어 2004년 12월 미술관 등록이 허가된 제1종 사립미술관이다.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옛 초등학교 터에 옛 학교의 향수와 현대식 건축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을 진행하여 탄생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자 전문 미술관이다.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문화서비스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점차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문화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준높은 전시와 프로그램의 기획을 시도하고 있다. 문턱 낮은 미술관을 모티브로 지역 미술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속 예술의 창이 되어 방문객 여러분의 아름다운 쉼터가 되고자 한다.

연혁

- 2004 시안아트센터 설립
- 2004 제1종 사립미술관 등록, 시안미술관 기관명 변경
- 2006 별관 준공
- 2015 교육기부우수기관 선정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 2017 미술관 리모델링

전시 연혁

- 2023 뮤지엄, 예술의 정원: Walking on the Quest-위대한 여정
- 2022 집회를 벗어난 마녀들
- 2022 STROLL
- 2022 그 : 곳, 때, 일
- 2021 Invisible Monuments
- 2021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2021 Pars pro toto,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보다.
- 2020 Be TRUE
- 2020 TRACE
- 2019 FROM A TO B

교육 연혁

- 2023 어흥상담소
- 2021 기억숨바꼭질
- 2021 놀이하는 인간
- 2020 고양이탐정
- 2020 Recycle Creator
- 2019 바람이 그림 될 때
ART SWITCH, 재생, 스위치를 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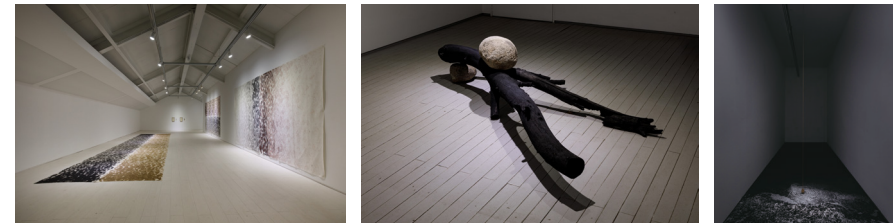
시안미술관은 1999년 폐교된 초등학교를 현대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시각예술전문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는 '영천시 화산면' 소재 '가래실 마을'은 <2011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지로 선정되어 총 50여점의 공공미술작품과 함께 <가래실 문화마을로> 조성되었다. 미술관은 담을 허물어 마을과 경계를 없애 지역 전체가 지붕없는 미술관을 컨셉트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2023 박물관 · 미술관 주간

Walking on the Quest - 위대한 여정

전시일정 : 2023. 4. 14 ~ 6. 25



참여작가 오쿠보 에이지

오쿠보 에이지는 일본의 1세대 대지미술가로서 일본 특유의 문화적 정신성을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했다. 때문에 그의 작품은 작품과 주변 환경의 조화와 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는 일본 특유의 대지미술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오쿠보 에이지의 작품은 돌, 나무, 식물과 같은 자연 요소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배치하고, 풍경의 미학적 시선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색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의 대부분의 작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도록 설계되어 자연의 힘에 반응되도록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장소 특정적이기도 하면서 시간 특정적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오쿠보 에이지의 작품은 작품과 주변 환경이 가지는 각각의 내러티브 간의 미묘한 연결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성은 오쿠보 에이지가 예술 실천의 태도로써 수행하고 있는 '걷기'로부터 시작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그는 작품의 완성보다는 제작 과정을 중시하며, 걸으면서 수집한 것을 그곳에서 선별한 돌과 나무를 이용하여 환경에 콜라주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또한 그곳을 스스로가 걷고 통과한 증거로서 그 땅을 기록하는 형태가 작품으로 드러나는데, 오쿠보 에이지에게 이 '걷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수단이자 존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오쿠보 에이지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형상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

미술관의 정원에서

한국미술관은 올해 개관한 지 40주년을 맞이하며 이곳 용인시 마북동으로 이전한지는 29년째에 접어든다. 미술관의 마당에 잔디를 깔고 조각품을 전시했더니 동네 이장님께서 오며가며 농사 안 짓는다고 불평하셨던 기억이 난다. 1994년 3월 26일 이전 개관 기념으로 <여성, 그 다름과 힘> 전시를 개최했고 김홍희선생님의 기획으로 여성 페미니즘 작가들의 전시를 펼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불 작가가 억압된 여성들의 정신적, 육체적 해방을 과감히 표현했던 마당이 지금도 굳건히 미술관을 지키고 있다. 그 이후 많은 전시가 개최되었으나 그 가운데는 여성성을 주제로 한 전시가 한 중심 축을 이루어 왔다.

현재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수영 작가의 <보물의 정원> 전시와 김종옥 작가의 <바람의 정원> 전시가 특히 그렇다.

서수영 작가와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황실의 품위”라는 주제로 조선시대의 근엄한 궁중 여인상을 표현한 작품들의 전시가 인상적이었다. 그 후 많은 작품 활동을 이어온 작가는 이번 <보물의 정원> 전시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백자의 순수함과 고귀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또 다른 보물 같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야외정원과 본관 전시장에서는 김종옥 작가의 <바람의 정원> 전시로 또 다른 예술의 정원을 펼치고 있다. <바람의 정원>에서는 미술관 정원에 있는 소나무를 소재로 한 패턴으로 제작된 섬유작품들을 야외와 본관 전시장에 설치하면서 자연의 바람과 실내의 인위적인 바람이 작품에 섞여 작품들이 움직이는 가시적 현상을 관람객들의 자연스럽게 심리적인 움직임으로 연결되며 동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두 전시의 조화를 이어주는 매개역할로 현악6중주의 <음악의 정원> 연주회를 준비하였다. 연주곡 선정은 전시 작품들을 보고 연상되는 바하, 헨델, 모차르트 연주곡 외 클래식 소품들로 구성하였다. 전시장 내에 울려 퍼지는 현악기의 선율들이 전시작품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느끼고 대화하는 듯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2회의 연주를 흔쾌히 승낙 해 주신 오르페오 악기박물관 신재현관장님과 오르페오 앙상블 현악 연주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 예술의 정원> 전시를 함께 만든 영은미술관, 남포미술관, 대산미술관, 시안미술관 관장님들과 학예사들께 감사하며 많은 대중들이 5월 박물관 미술관 주간을 맞아 가까운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 문화와 예술에 흠뻑 젖는 시간들을 갖기 바란다.

한국미술관 관장 안연민

한국미술관 <뮤지엄, 예술의 정원>

한국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2023.5.3.~5.28)」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함께 만드는 뮤지엄」 사업에 <뮤지엄, 예술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남포 미술관(전남 고흥), 대산 미술관(경남 창원), 시안 미술관(경북 영천), 영은미술관(경기 광주)과 함께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뮤지엄, 예술의 정원>을 주제로 2개의 전시와 음악회를 기획하였다.

첫 번째 전시는 한국적인 미감으로 송고한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서수영 작가의 ‘보물의 정원’, 두 번째 전시는 자연을 소재로 한 패턴과 바람의 조화로움을 보여주는 김종옥 작가의 섬유 작품 전시 ‘바람의 정원’ 그리고 ‘음악의 정원’ 현악 연주회이다.

서수영, <보물의 정원>, 4.11-6.11

서수영 작가는 작가 특유의 감수성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채색화로 주목 받아왔다. 작가는 10년전 한국미술관에서 <황실의 품위>전으로 화려한 색상과 금빛의 궁중 여인상 작품을 선보여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23년 한국미술관 40주년에 다시 한번 뜻깊은 전시를 갖게 되었다.

서수영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조선백자 ‘달항아리’ 형상 안에 지금까지 실험해온 ‘한국적 미감의 다양한 해석’을 구현해냈다. 오랜 기간 전통적 미감을 표현하기 위해 매진했던 노하우를 살려 노동 집약적이며 세밀함을 요구하는 독창적인 한지 부조 기법과 금채화 기법을 더해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현정 평론가는 조선시대 유려한 곡선의 달항아리와 한국적인 오브제를 작가의 시선으로 해체하고 재해석한 ‘서수영의 종합주의’를 한국미를 해체 후 재구성 했다는 측면에서 ‘한국적 큐비즘의 개념화’라고 정의했다.

김종옥, <바람의 정원>, 5.12-5.28

김종옥 작가의 실크 작품은 빛과 바람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으로 주변의 ‘움직임’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바람이 만드는 원근감과 깊이, 불규칙한 ‘움직임’의 방향은 관람객들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유발한다. 또한 관람객들은 바람의 동적인 생명력으로 채워진 전시 공간에서 ‘심리적인 움직임’을 경험하며, 그 곳이 정적인 사유의 공간으로 환기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오르페오 앙상블, <음악의 정원>, 5.13, 5.20

<음악의 정원>은 이번 사업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행사로써 약 3여 년간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좁아지고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져 이웃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은 음악회를 기획하였다.

한국미술관 학예사 송민정



뮤지엄_예술의 정원 形形色色형형색색 전시 전경입니다



바람의 정원
가변 설치(영상), 270x110cm(3pcs), 에어서클레이터, 아두이노, 2023

김종옥 Jongock Kim (1981~)

김종옥은 무한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모듈화하여 공간으로 확장하는 인터랙티브 설치작업을 통해 가상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가 경험한 공간에서 찾은 이미지들은 육각 모듈 속 패턴들로 재생산되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원본의 또 다른 재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원본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새로운 매체 기술에 의한 예술 복제는 실재(the Real)와 모사(the Copy)에 관한 물음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 실체는 복제된 이미지를 구별해 낼 수 없고, 모사의 이미지가 그 자체로 실재를 의미한다는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Simulation) 이론에 담론을 던지는 작업을 주로 해 오고 있다. 김종옥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도심 내 정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무한 반복하여 패턴화하는 실크 작품을 설치하여 실외 정원과 어우러지는 예술적 바람의 정원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실제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고유의 부드러운 물성과 가상의 바람에 의해 흩날리는 3D나무의 영상 설치를 통해 가상과 실제의 모호한 경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Jongock Kim visually tells the story of the virtual and the real through interactive installations that modularize infinitely repeating patterns and expand them into space: the virtual and the real through an interactive installation. The images found in the area experienced by the artist are reproduced as patterns in hexagonal modules. These images become another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and a new original meaning. In this exhibition, Jongock Kim will install a silk work that patterns infinitely and repeatedly, based on the story of a garden in the city center. That repeats itself infinitely, creating an artistic wind garden harmonizing with the outdoor garden. Through his works, the artist creates the unique softness and the blurred boundaries between the virtual and the real through a video installation of 3D trees blown by a virtual wind between the virtual and the real.



한국미술관은 1983년 서울 가회동에 개관하여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 깊은 미술관이다. 1994년 3월 현재 위치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으로 이전 하였으며, 이전 개관 기념으로 '여성, 그 다름과 힘' 전시와, 세계적 작가 이불의 퍼포먼스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미술관은 본관과 신관 전시실과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 수장고, 사무실, 실습실, 강의실 겸 도서실 등이 있다. 한국미술관은 경기도 테마 미술관으로 지정되어 국내외 유명 작가뿐 아니라 신진작가, 지역 작가 활성화를 위한 전시에 힘쓰고 있으며,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역 사회 대표미술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혁

- 1983 한국미술관 개관, 한국미술 아카데미 개설 (소재지 : 서울 종로구 가회동 1-200)
- 1986 문화부 준박물관 15호 등록
- 1993 문화관광부 제35호 등록
- 1994 한국미술관 이전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4-2)

전시 연혁

- 2023 뮤지엄, 예술의 정원: 보물의 정원x바람의 정원
- 2022 팝아트 기획전 <Feeling of Healing>
- 2022 백남준 탄생 90주년 기념 아카이브전 <Paik&Beuys>(백남준, 요셉보이스)
- 2022 3대를 이어온 흙의 송결 :김형록,김정,이순자,김진홍 초대전 <달빛차향>
- 2022 용인 지역 작가 27인 단체기획전 <마북에 담다>
- 2021 박민정 초대개인전 <Scenery>
- 2021 소장품전 <시간을 열다>
- 2021 박세영 개인전 <Sampled Culture>
- 2021 청소년플랫폼 기획전 <꿈의 흐름 >
- 2021 Ceramic Art Tech Relay 단체전 <흙의 향기>
- 1983-2023 현재 300여회 전시

교육 연혁

- 2021 - 2023 전시해설프로그램 : 미술이 내게 닿다
- 2021 - 2023 감성스튜디오 : 만들기 수업
- 2021 - 2023 작가와의 만남

한국미술관은 1983년 개관기념 "한국인상전"(김홍수, 김환기, 박수근, 장욱진 외 9인)을 시작으로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1994년 "여성 그 다름과 힘" 전시로 여성 작가들의 정체성 확립에 힘쓰고, 2001년 "나혜석 바로알기" 전시 및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선구적 여류 예술가 나혜석을 재조명 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지역 예술발전을 위한 신진 작가 발굴과 공간 개방에 힘쓰고 있다.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보물의 정원

전시일정 : 2023. 4. 11 ~ 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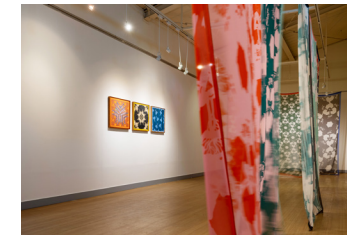


참여작가 서수영

서수영 작가는 조선백자 '달항아리' 형상 안에 지금까지 실험해온 '한국적 미감의 다양한 해석'을 구현해냈다. 달항아리 형식 외에도 국보 보물로 지정된 백자들의 여러 기형과 문양을 종합해 작가만의 화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외형의 형태미가 지닌 다양성과 궁중화에서 보이는 문양들을 한지 입체부조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어우러진 문양의 확장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서수영 작가의 작품에서는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이고,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송고한 아름다움 느낄 수 있다.

바람의 정원

전시일정 : 2023. 5. 12 ~ 5. 28



참여작가 김종옥

김종옥 작가는 도심 내 정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작업하였다. 작가는 무한 반복하여 패턴화한 실크 작품을 설치하여 실의 정원과 어우러지는 예술적 '바람의 정원'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관람객들은 '바람의 정원'에서 비가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 일으키는 '움직임'으로 입체적 조형미를 구현하는 섬유 예술의 독창적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음악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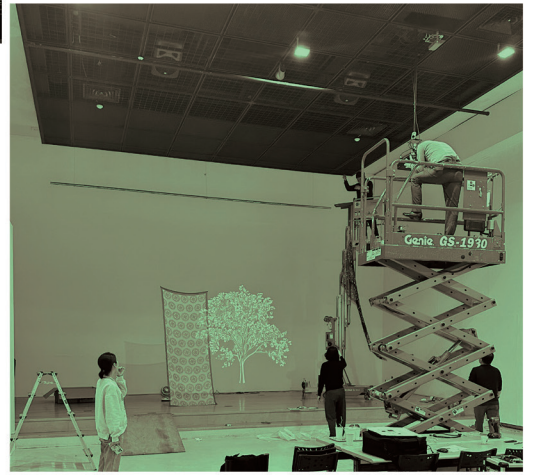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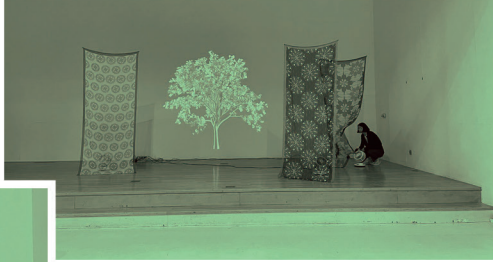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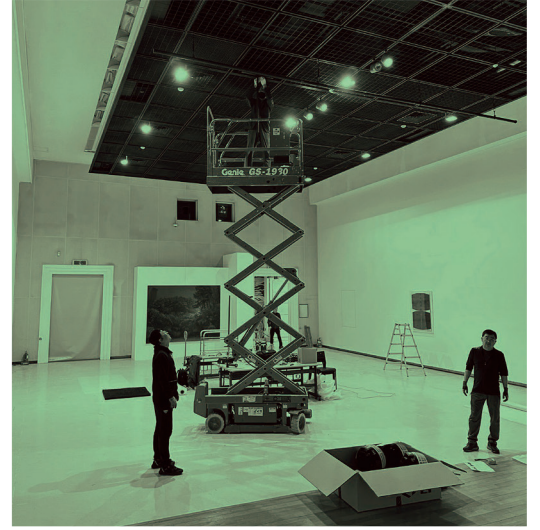
행사일정 : 2023. 5. 13, 5. 20



오르페오 앙상블

한국미술관의 <음악의 정원>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좁아지고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져 이웃과 단절 되었던 관계를 회복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현악연주 행사이다.

Episode



Episode

2023. 5. 23. 연합전시 참여기관 라운드 테이블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_예술의 정원
形형 色色
形형 色色
4. 29 - 5. 28
김종욱, 민재이, 박은용, 송번수, 송 필, 이만나,
오쿠보에이지, 장준호, 진유영, 정경연, 최주휴, 최혜광
[영은미술관, 남포미술관, 대산미술관, 시안미술관, 한국미술관]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ICOM, nmf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운영 한국미술관



形色

190 색

形色

190 색

영은미술관

| | |
|-------|----------------------|
| 발행일 | 2023년 6월 |
| 발행처 | 영은미술관 |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ICOM한국위원회 |
| 주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 기획 | 영은미술관 학예실 |
| 총괄 | 관장 박선주 |
| 책임 | 팀장 정효정 |
| 진행 | 명재희, 홍의영 |
| 교육 | 손우성 |
| 보조 | 유지수, 조은비, 권소망 |
| 번역 | 홍의영, 이정민, 김윤아 |
| 설치 | 영은미술관 관리팀, 5아트, 다빈아트 |
| 사진·영상 | 포아트(박종호), 유지훈 |
| 디자인 | 한빛디자인 |
| 인쇄 | 인타임 |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 | |
|----------------|---|
| Issue date | June 2023 |
| Published by |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
| Organized b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COM Korea |
| Hosted by | Cultural Founda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 Hosted by | Cultural Founda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 Curated by | Curatorial Dept. of YEMCA |
| Directed by | Park Sunjoo, Director of YEMCA |
| Operated by | Chief Curator Jung Hyojung |
| Conducted by | Myeong Jaehee, Hong Euiyoung |
| Educated by | Son Woo Sung |
| Co-operated by | Yoo Jisoo, Cho eunbi, Kwon Somang |
| Translated by | Hong Euiyoung, Jeong Min Lee, Aileen Kim |
| Displayed by | Administration Team of YEMCA, 5Art, DAVIN |
| Photo/Video by | Foart(Park Jongho), Yoo Jihoon |
| Designed by | Hanvit Design |
| Printed by | Intime |

남포미술관

| | |
|----|---------|
| 총괄 | 관장 곽형수 |
| 진행 | 부관장 조해정 |

Nampo Art Museum

| | |
|--------------|----------------|
| Directed by | Kwak Hyung-soo |
| Conducted by | Jo Hae-jung |

대산미술관

| | |
|----|---|
| 총괄 | 관장 김철수 |
| 진행 | 전시 운영 총괄 김연실 학예실장(도슨트) 추병곤 학예인턴 조혜리 |

Daesan Museum

| | |
|--------------|--|
| Directed by | Kim Choul Soo |
| Conducted by | Kim Yeun Sil Choo Byung Gohn Jo Hye Ri |

시안미술관

| | |
|----|---------------------------------|
| 총괄 | 관장 변숙희 |
| 진행 | 부관장 김현민 큐레이터 박천 학예연구원 이가영 |

CIAN Museum of Art

| | |
|--------------|---|
| Directed by | Byeon Suk Hui |
| Conducted by | Hyunmin Kim Park Cheon Lee Ga Young |

한국미술관

| | |
|----|--------------------------------|
| 총괄 | 관장 안연민, 장은재 |
| 진행 | 학예실장 장성은 학예사 송민정 학예사 조병훈 |

Hankuk Art Museum

| | |
|--------------|--|
| Directed by | Ahn Yeon Min, Chang Un Jae |
| Conducted by | Chang Soung Un Song Min Jung Cho Byoung Hoon |

www.뮤지엄위크.kr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영은미술관. 2023본 도록에 실린 모든 자료는 영은미술관의 전제 없이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23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s of by any means without the permission of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영은미술관 12791 경기도 광주시 청석로 300, Cheongseok-ro, Gwangju-si, Gyeonggi-do, 12791, Rep. of Korea
Tel. 031)761-0137 Fax. 031)762-4189 www.youngeunmuseum.org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Korea Rep.

nmf

국립박물관문화재단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운영



영은미술관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